

자전거 음주·안전모 단속 실효성 '의문'

'개정 도로교통법' 이대로 괜찮나

<1> 현실과의 괴리

지난달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안전 을 위해 개정된 법안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주요 여론이다. 특히 자전 거 헬멧착용 의무화의 경우 처벌규정조차 없어 형식적인 개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에 따라 본지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인 자전거 음주단속, 헬멧착용 의무 화,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중 심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네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현 실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각종 부작용과 함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고속도로·자 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됐지만 단속기준 등의 문제 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 적용되고, 동승자 가 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립용 차량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탑승객 역시 안전벨트 를 매야 한다.

문제는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 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만, 운전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승객 이 불응한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 과하지 못한다. 이는 대중교통에 한해 적용되는데다 단속기준도 모호해 형평 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6살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 착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안을 보면

과태료·범칙금 부과 못하는 훈시규정에 불과 "카시트 들고타야 하나"... 단속기준도 애매해 시민들 "현실 외면 주먹구구식 정책 개선해야"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카시트를 장착해야 하는데, 택시나 버스같은 대 중교통 이용 승객의 경우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한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여론이다.

정부가 강화한 자전거 안전규제 법안 도 논란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자전거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안전모 미착용이라는 점에 착안,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를 착용토록 했다. 하지만 과 태료·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훈시규 정이다.

일상에서 짧은 시간 자전거를 타는 사 람들도 안전모를 쓰게 하는 게 현실에 맞는 지 등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 된 이후 단속규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내비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자전거 안전모의 경우 위생문제까 지 오르내리면서 공용자전거 사업에 제 약이 생기는 등 오히려 자전거 탑승률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 려마저 낳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 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부분도 문제다. 경 찰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의 심되는 상황이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 생한 경우 등에 한해 단속할 방침이지 만, 제보와 사고현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안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것 이다"며 "11월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 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범칙금을 부 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과 동호회 관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은 만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주먹구구식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 에코바이크 김광훈 사무국장은 "생활 속에서 잠시 이용하는 자전거 탑 승자조차 헬멧을 사야 하는 상황이다. 현실에 맞는 법안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속기준 등이 모호하다"면서 "실제 적발하려면 승춘보 인근 수퍼에서 합정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조건 단속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음주 운전 단속취지에 대한 홍보와 현실에 맞 는 단속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라 기자



한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개천대제 봉행 단기 4351년 단군이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의 뜻을 밝혀 이 땅에 나라를 세운 개천절을 맞아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5·18공원 여의산에서 열린 개천대제에서 제관들이 술을 올리고 있다./김태규 기자

JB금융, 광주은행 주식 흡수 마무리

JB금융지주가 최근 주력계열사인 광 주은행 주식매수청구를 마무리했다.

특히 JB금융지주는 오는 26일 광주 은행 상장 폐지에 따른 주식 흡수로, 전 체 발행 주식 규모가 2억 만주에 육박하 게 됐다.

3일 광주은행 공시자료에 따르면 JB 금융지주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일 까지 광주은행의 '주식매수권' 행사기

간을 진행했다. 이 기간동안 주식매수를 청구한 광주은행의 주식총수는 671주, 총금액은 724만2,103원이다. 이에 앞서 JB금융지주는 지난 2014년 예금보험공 사로부터 2,923만5,500주(56.97%)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주당 1 만793원이며 JB금융 측은 오는 5일까 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일 주식 교환을 완료하고 이날 26일 광주은행은 상장폐지된다.

이에 따라 JB금융지주의 발행주식 총수는 4,154만3,471주가 추가 발행돼 총 1억9,698만2,894주로 변경된다.

JB금융지주는 이를 통해 그룹 경영 지표 개선 효과와 광주은행의 경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김영민 기자

태풍 '콩레이' 오늘부터 한반도 영향권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이다. 태풍의 진로가 빨라 지며 4~7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된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로 북상 중이며,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710km 부근 해 상에서 북서 방향으로 180km/h의 속도

로 이동 중이다. 지난달 29일 괌에서 생 성된 태풍 콩레이는 4일 만에 급속도로 몸집을 키우며 북상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상륙이 예상 되는 4일과 7일 사이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시작

단 한사람도 차별없이 시민 모두가
보편적 권익을 누리는 광주, 그 출발점에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100일 이내
해법제시 최종보고회**
일시 : 2018.10.8(월) 13:00
장소 : 광주광역시청 시민홀

바로소통 바로응답
정책 제안 · 토론 생활 불편 · 민원
barosotong.gwangju.go.kr baroeungdap.gwangju.go.kr